

민중의 자발성과 지도의 문제*

- 최명익의 중기 소설 연구

장 수 익**

차 례

- | | |
|-----------------------|----------------------|
| 1. 서론 | 4. 주체적인 근대의 근거로서의 민중 |
| 2. 식민지적 근대에 대한 비판적 성찰 | 의 자발성 |
| 3. 자기 반성과 능동적 민중상의 발견 | 5. 결론 |

국문초록

최명익의 삶과 문학은 근대란 무엇이며, 그러한 근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의문과 연결되어 있다. 해방 이후 최명익은 식민지적 근대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공산주의가 득세하게 된 북한의 현실을 수용한다. 부르주아의 잔재나 인텔리겐차의 한계 등의 비판 속에서 최명익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승차’ 모티프에서 출발하여 「맥령」에 이르러 발견한 민중의 자발성 내지 능동성이었다. 공산주의적 지도를 민중들의 자발성과 어떻게 융화시키는가는 최명익 중기 소설의 핵심적인 과제였던 것이다. 해방 이후의 문제를 다룬 최명익의 소설들에서 근대를

* 이 연구는 한남대학교 교비연구과제(2010A312)로 연구되었음.

** 한남대학교

성취하는 것은 민중들이다. 이들은 해방이나 토지개혁 등 외부에서 부여된 사태를 자발성과 능동성으로 훌륭히 소화해내면서 식민지적 근대의 폭압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근대 국가를 만들어갈 방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려진다. 민중에 의한 근대의 자발적인 성취를 그려내었다는 점이 이 시기 최명익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이다.

주제어 : 식민지적 근대성, 동승자, 자발성, 지도자, 영웅적 노동자

1. 서론

최명익은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소설을 대표하는 작가로서, 식민지 지식인의 현실에 대한 도피적 심리를 섬세하게 드러내는 것¹⁾을 중점적 과제로 삼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명익에게 있어 또 다른 문제 사항은 해방 이후 좌익으로 전향하고, 북한에서 역사소설의 한 모범적인 예로 불리는 『서산대사』를 썼던 삶의 궤적이다. 이러한 궤적으로 그는 리얼리즘 대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사적 대립 구도를 해명할 대표적인 경우로도 탐구되기도 했다.

그동안 최명익의 소설은 대체로 세 가지 방향으로 연구되었다. 첫째, 최명익 소설이 취한 내적 형식의 미학적 의미를 탐구하는 연구, 둘째, 최명익 소설이 함축하고 있는 현실부정성에 대한 연구, 셋째, 전향을 둘러싼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의 연관성 및 사상 전향 과정에 대한 연구이다.

이 가운데 첫 번째 방향의 연구는 최명익의 소설이 초기의 지식인의 자폐적이고 자의식적인 내면 심리를 그리던 것에서 기층 민중의 삶과 심리를 그리는 쪽으로 옮겨갔는데, 이것이 해방 후 리얼리즘 소설로 나아갈 수 있었던 내적 동인이 되었다고 설명한다.²⁾ 두 번째 방향의 연구

1) 조남현, 『한국지식인소설연구』, 일지사, 1984, 198쪽.

는, 1930년대 말의 전형기적 상황과 관련지어 최명익 소설의 현실 대응 양상을 주목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일제의 군국주의화로 인한 혼돈과 모색의 시기에서 최명익 소설은 당시 현실에 대해 담론화된 저항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최소한 그러한 현실과 타협하지는 않을 자존심 또는 결벽성을 드러내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³⁾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향의 연구는 최명익 소설과 근대성의 연관성을 드러내는 데 일차적인 중점을 둔다. 이에 따라 독서 모티프, 산책자 모티프 등이 최명익 소설의 내적 형식으로서 근대성에 대한 미학적 성찰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⁴⁾

이와 같은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볼 때, 최명익은 한국 모더니즘 소설의 한 전형을 드러내 보인 작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소설은 혼돈과 절망에 빠진 지식인의 심리를 통해 비록 식민지 상태에서 파행적으로 전개되었지만 근대화 과정에서 형성된 근대성에 대해 미학적인 성찰을 수행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최명익의 해방 이후 작품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연구가 수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1950년대 이후 최명익이 쓴 여러 소설들은 장편역사소설 『서산대사』 등 몇 작품을 제외하고는 아직 실증적인 정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형편이다.

이 글은 최명익이 해방 직후에 쓴 중기 소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비록 해방이라는 큰 역사적 변화가 있었지만, 최명익이 모더니즘을 벗어

-
- 2) 채호석, 「리얼리즘에의 도정--최명익론」, 김윤식·정호웅 편, 『한국문학의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민음사, 1989 ; 김윤식, 「최명익론」, 『한국현대현실주의소설연구』, 문학과지성사, 1990 ; 신형기, 「최명익과 쇠신의 꿈」, 『현대문학의 연구』 24집, 2004.
 - 3) 김민정, 「1930년대 후반기 모더니즘 소설 연구: 최명익과 허준을 중심으로」, 『한국학보』, 1994.12 ; 문홍술, 「추상에의 욕망과 절대주의 미학: 최명익론」, 『관악어문연구』, 1995.12.
 - 4) 최혜실, 『1930년대 한국모더니즘소설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1 ; 진정석, 「최명익 소설에 나타난 근대성의 경험 양상」, 『민족문학사연구』 8호, 1995.

나게 된 것에는 그러한 외적 요인만 관여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해방 이전의 단계에서 이미 최명익은 유럽 모더니즘과는 다른 성격의 모더니즘을 추구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추구를 바탕으로 지식인 중심의 시각에 갇히고 마는 모더니즘의 전반적인 한계를 넘어서려는 지향을 드러낸 바 있기 때문이다. 사실 최명익이 추구했던 모더니즘 문학은 식민지적 근대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었으며,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인해 최명익은 해방 이후의 리얼리즘 문학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⁵⁾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해방 이후 최명익 소설에 접근하기 위해 감안해야 할 것은, 그가 당 지도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얼마만큼 접근할 수 있었느냐 하는 문제이다. 그가 리얼리즘으로 돌아섰다고 해서 그 이전의 모더니즘 경향이 아예 사라졌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럴 때 해방 직후 최명익 소설은 이념 중심의 리얼리즘에 표면상 융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그 이면으로는 이념과 합치되지 않는 성격을 은밀하게 드러내고 있다. 미리 말하자면, 식민지적 근대의 특수성을 감안했던 해방 이전의 모더니즘의 유산이 최명익으로 하여금 이념 중심 지도자 중심으로 달려가던 여타 북한의 문학과는 다른 성향을 드러내도록 했던 것이다. 이 점을 고찰하는 것이 이 글의 또 다른 목적이다.

2. 식민지적 근대에 대한 비판적 성찰

이 절에서는 해방 이전 최명익 소설을 조감해 보면서, 해방 이후의 문학적 궤적을 내재적 요인으로 설명할 근거를 찾아보기로 한다.

5)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할만한 연구는 김재용, 「해방 직후 자전적 소설의 네 가지 양상」, 『민족문학운동의 역사와 이론 2』, 한길사, 1996 및 김혜연, 「해방 직후 최명익 소설 연구--『맥령』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17집, 2002 등이 있다.

최명익에게 본격적인 문학 활동의 출발점이 되었던 「비오는 길」은 여러 모로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과 대비된다. 박태원이 그 작품에서 구보를 내세워 경성의 거리를 돌아다니게 할 때, 그가 주안점을 두었던 것은 근대적 거리에서의 행복 찾기였다. 이러한 행복 찾기의 방법론이 산책자 모티프였음은 주지의 사실이거니와, 발터 벤야민은 이러한 산책자를 생업에 매달려 바쁘게 오가는 군중과, 거리와 절연되어 ‘완전한 여가’를 누리는 무위도식자의 중간적 유형으로 규정한 바 있다.⁶⁾ 곧 산책자는 거리에 펼쳐진 근대적 현실에 종속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관심하지도 않은 채 적당한 물리적 거리를 두고 거리의 사람과 풍물을 살펴보는 사람인 것이다. 이와 같은 벤야민의 규정과 함께 고려할 것은 보들레르가 드러내었던 당디즘이다. 평범하고 속물적인 군중에 대한 우월감을 뜻하는 이 당디즘은, 그러나 산책자에게 고독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구보가 군중들에 대한 우월한 위치 속에서 거리를 두고 그들을 관찰하면서 고독을 벗어나 행복을 찾는 행동을 드러내 보이는 것은 보들레르적인 의미에서의 전형적인 산책자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최명익의 「비오는 길」의 주인공인 병일은 보들레르적인 의미의 산책자라고 하기에는 여러 모로 이질적인 면이 있다.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거리를 한가로이 걷고 있는 구보와 달리 병일은 출퇴근 때문에 할 수 없이 걷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그에게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이나 노파가 팔고 있는 사과나 모두 똑같이 하나의 사물로만 여겨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곧 이 지점에서 병일은 산책자라기보다는 군중의 일원일 뿐이다.⁷⁾

병일을 보들레르적인 산책자로 볼 수 없는 두 번째 측면은, 그가 걷는

6) 발터 벤야민, 『발터 벤야민의 문학회론』, 반성완 역, 민음사, 1983, 140쪽.

7) 그러나 병일이 구보와 같은 점은 고독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빠진 이유가 지식인으로서의 속성 곧 지성에 있다는 것도 같다. 병일이 고독 속에서 도스토예프스키와 니체를 읽는 행위 역시 당디즘적인 것이다.

거리의 성격이 구보가 걷는 거리와 다르다는 점이다. 구보는 서울의 근대화된 도심의 거리를 걷는 반면, 병일은 평양성 외곽에 갓 뚫린 신작로를 걷는다.

네프스키 지구(페테스부르크의 근대화된 거리--인용자)는 자유와 환각적인 약속을 제공하는 현대적인 공공장소다. 하지만 가난한 서기에 있어서 봉건 러시아의 계급 배치가 전보다 더 엄격하고 치욕적이다. 이 거리가 약속하는 것과 실제로 전달해 주는 것 사이의 대조는 지하생활자로 하여금 무기력한 격분뿐만 아니라 유토피아적 갈망의 랩소디에도 끌고 간다.⁸⁾

그러나 위의 인용에 따른다면 보들레르적 산책자 외에 전 근대와 근대 사이를 방황하는 또 다른 유형의 산책자를 설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스토예프스키적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산책자는 중간자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근대적 거리의 자연스러운 참여자로서 자신의 자격을 의심하지 않는 보들레르적인 산책자에 비해 근대에 대한 자격지심 또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근대는 지배 계급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지, 저개발 사회의 피지배 계급인 자신에게는 결코 해당되지 않는다. 그에게 근대란, 일종의 환상일 뿐, 그가 거리에서 실제로 접하는 것은 그 환상에 대조된 군중들의 열악한 현실과, 마찬가지로 그 현실에서 움쭉달싯도 못하는 자신의 처지인 것이다. 결국 이 유형의 산책자는 거리 경험을 통해 자신의 무력감에 대한 확인과, 그로 인한 자조 및 자기힘오에 봉착하게 된다. 이 유형의 산책자에게 거리 경험이란 자기 확인의 기회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병일이 도스토예프스키적인 산책자라면, 최명익은 박태원보다 더욱 근본적으로 저개발사회의 근대 곧 식민지적 근대를 문제 삼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근대에 대한 매혹보다 저개발 상태의 파행적인 근대

8) 마살 버만, 『현대성의 경향』, 윤호병·이만식 역, 현대미학사, 1994, 280쪽.

속에서 겪게 되는 지식인의 자괴감이 이 시기 이후 한동안 최명익 소설의 주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후 최명익은 「역설」이나 「폐어인」에서 식민지적 근대가 낳은 모순적 상태를 극복할 길이 없다는 자괴감을 본격적으로 다룬다.

그러나 최명익은 지식인의 자의식적인 자괴감을 다루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다.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무성격자」인데, 여기서 그는 산책모티프의 변형으로서 승차모티프를 처음 선보인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 정일은 부친이 암으로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간다. 그러나 고향 역시 도시처럼 저개발상태의 속물적인 질서⁹⁾가 지배하는 곳일 때, 정일은 오로지 기차를 타고 있을 때만 저개발상태의 속물적인 질서나 그로 인한 자괴감의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자유로움은 사실 환각적인 것이다. 기차는 근대를 표상하는 제도적인 장치로서, 「애연의 도시」와 도시 사이를 연결하는 근대의 통로인 것이지,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출구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일이 자유로운 기분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고 대신 “여름 날 썩은 물에 북질북질 끓어오르는 물거품 같”은 자괴감을 다시 느끼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후 최명익은 저개발 상태의 자괴감으로 표상되는 지식인의 내면을 그려내는 경향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그렇게 벗어나는 것은 기차라는 제도적 장치의 성격을 다시 고려하는 것에서 가능했다. 저개발상태에서 외세에 의해 강제적으로 건설된 기차는, 근대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전형적으로 드러내는 제도적인 장치였던 것이다. 그럴 때 최명익은 기차라는 근대적 장치를 세 작품에 걸쳐 탐구한다.¹⁰⁾ 「심문」에서는 ‘속도’를, 「봄

9) 이러한 질서는 서구적 근대가 강조했던 예절과 교양이라는 외면적 포장도 없이 금전만능주의와 남성중심주의, 그리고 제국주의적인 정치 기구가 자신의 폭력적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질서를 가리킨다.

10) 최명익이 일제강점기 동안 발표한 소설 가운데 승차모티프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은 「심문」, 「봄과 신작로」, 「장삼이사」 등 세 편이다. 여기에 「무성격자」를

과 신작로」에서는 운전자를, 그리고 「장삼이사」에서는 동승자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먼저 「심문」은 기차의 속도를 테마화한 작품이다. 여기서 기차의 속도는 근대적 삶이 변화하는 속도를 표상한다. 사회주의자였던 현혁과 그의 애인 여옥이 한갓 아편쟁이가 되어버리는 삶의 극단적인 변화는 할빈행 특급열차의 엄청난 속도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곧 기차의 속도는 근대 사회에서의 삶의 속도에 비견되는 것인데, 이로써 현혁과 여옥의 비극은 기차 곧 제국주의적 근대가 ‘음모’한 것이며, 그러하기에 불가항력의 억압에 의한 것으로 그려지게 된다. 이러한 억압에서 삶의 진정성을 바칠 곳을 찾을 길 없이 여옥이 쓸쓸하게 죽어가는 장면을 통해 최명익은 근대적 삶의 속도가 강요하는 운명은 죽음밖에 없다는 비극적 인식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봄과 신작로」를 보면, 이 작품은 운전자와 민중 간의 교섭을 다루고 있다. 이때 근대는 민중들에게 욕망의 표상이 된다. 자동차를 타면 평양에 가서 벚꽃놀이를 할 수 있다는 금녀의 욕망은 바로 말끔히 차려입고 ‘하부다이’ 손수건으로 손을 닦는 운전자에 의해 촉발된다. 곧 이 작품에서 운전자는 민중들에게 근대에 대한 욕망을 부추기는 존재인 것이다. 그러나 욕망에 들떠서 운전자의 접근을 허용했던 금녀는 운전자에게 성명을 훔쳐 죽게 되고 만다. 이와 같은 욕망과 죽음의 대비는, 최명익이 제국주의적 근대가 식민지 상황에서 어떻게 민중들에게 다가오고, 또 어떤 결과를 민중들에게 가져다주는지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단적으로 말해 근대적 욕망은 파멸이라는 뒷모습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삼이사」를 보면, 이 작품은 삼등 기차간의 한 풍경을 제시하면서, 기차를 타고 있는 동승자들 곧 자의와 상관없이 근대라는 환경 속에서 살게 된 민중들이 어떻게 근대적 상황을 견뎌내는지를 드

포함시킨다면 승차모티프와 관련 있는 작품은 모두 네 편이다.

러내고 있다. 도망갔다가 포주에게 잡혀온 여성이 중인환시리에 당한 모욕에도 불구하고 그 모욕을 깨끗이 감춘 채 돌아오는 모습은 민중들이 어떻게 식민지적 근대라는 열악한 상황을 견뎌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우화이다. 근대를 표상하는 기차에 실려 어디론가 가고 있는 그들은 지식인적인 1인칭 관찰자의 눈에는 무지하게 보이기도 하고 비겁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 그들은 1인칭 관찰자인 ‘나’보다 더욱 정확하게 현실을 포착하고 있는 존재들이다. ‘나’가 민중들을 나약하고 비겁하며 무지한 존재들로 보게 된 것은 근대 교육과 지식에 의해 주입된 시각이었을 뿐, 민중들은 그러한 ‘나’의 시각과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근대를 파악하면서 또 독자적으로 근대를 견뎌내는 방식을 터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장삼이사」는 최명익이 수행해오던 지식인 중심의 문학을 넘어 민중의 독자성에 도달한 작품이며, 해방 이후 민중들을 소설의 전면에 배치하게 되는 시초를 이루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 최명익의 소설은 근대성의 이면을 예민하고도 섬세한 방식으로 드러낸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소설의 미학적 형식은 산책과 승차였다. 특히 산책으로는 제대로 포착할 수 없는 군중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 ‘동승자’를 통해 접근해 들어간 것은, 최명익이 일제 말기에 이미 모더니즘의 영역을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뒤에 다루겠지만, ‘동승자’를 통해 발견된 민중의 독자성은 해방 이후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민중상으로 확대 발전하면서 해방 이후 최명익 소설의 근간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중의 자발성과 능동성이 공산주의의 ‘지도’와 어떻게 융화될 것인가의 문제는 두고두고 최명익에게 고심거리로 남게 된다.

3. 자기 반성과 능동적 민중상의 발견

최명익은 일제의 압박을 피해 1년여 동안 은거했던 평안남도 강서군에서 해방을 맞는다. 1945년 9월 최명익은 평양으로 돌아와 이념적으로 중립적인 단체였던 “평양예술문화협회”를 결성하고 회장이 된다. 그러나 1946년 2월 “평양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과 통합하는 과정에서 평문협을 해체하고 그해 3월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에 가입하여 중앙상임위원과 평안남도 위원장을 맡는다. 그리고 1946년 3월 5일 전격적으로 실시되어 농민의 98% 이상이 자영농이 되었던 토지개혁에 호응하였으며, 1946년 12월에는 ‘주민들의 사상의식개혁을 위한 투쟁’으로서 “배금주의적 퇴폐문화와 개인주의 문화를 배격하고 전 인민이 향유할 수 있는 민주주의 민족문화를 창달하기 위한” 투쟁이었던 ‘건국사상총동원령’에 호응하여 함경도 성진의 한 농장으로 파견을 나가기도 하는 등 북한의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¹¹⁾

이러한 최명익의 전향 과정에 대해 다시금 고려해야 할 것은, 최명익이 「비오는 길」이라든가 「심문」, 「봄과 신작로」 등에서 보여준 내면이 서구중심주의적인 근대를 선망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점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오히려 그는 서구 중심 또는 일제가 강제로 유입시킨 근대화가 가져온 어두운 그늘을 문학 속에서 드러내고 극복하려 애썼던 것이다. 그러하기에 그가 일제강점기에 보여준 고뇌는 식민지 근대인의 고뇌였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곧 보들레르적 산책이 아닌 도스토예프스키적 산책을 중심 모티프로 선택한 것에는, 마샬 버만이 말한대로 ‘저개발의 모더니즘’¹²⁾을 고뇌하는 심정이 전제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지향을 지니고 있던 최명익에게 해방은 일제가 심어준 식민지적 근대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다가왔던 것이

11) 이 시기 최명익의 삶에 대해서는 김재용, 앞책 참조.

12) M. 버만, 『현대성의 경험』, 윤호병 역, 현대미학사, 1993 참조.

라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봄과 신작로」 그리고 「장삼이사」로 나타났던 기층 민중 또는 군중에 대한 관심도 해방을 대하는 최명익의 생각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곧 최명익은 이미 그 작품들을 통해 지식인의 자폐적인 내면만으로는 식민지적 근대성의 그늘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 따라서 그동안 산책자(지식인)들이 우월감으로 대해오던 군중에게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깨닫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군중을 대하는 산책자의 우월감이 약화되거나 소거된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이 두 측면을 고려할 때, 최명익에게 해방은 식민지적 근대성을 넘어설 절호의 기회이자, 그렇게 넘어설 가능성을 지식인이 아닌 군중 또는 기층 민중에게서 발견하는 실질적인 계기로 다가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적 요인 외에도 최명익이 해방 이후 보여준 좌익으로의 전향에는, 그가 자라고 생활한 곳이 평양이었다는 외적 요인도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를 두고 ‘평양중심주의’¹³⁾의 소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지만, 어쨌든 그가 평양과 평안도를 떠나 산 것은 짧은 유학 시기뿐일 만큼 38선이 갈린 뒤에도 북한에 남는 것이 자연스러웠다는 점만큼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내면적으로 이미 식민지 모더니즘의 그늘을 예민하게 느끼고 비판해 왔으며 더욱이 모더니즘 특유의 지식인적 속성에서 군중에게로 접근해 나가는 시기에 도달해 있던 최명익으로서는, 자신이 사는 곳에서 공산주의가 득세하게 되었을 때 구태여 그것을 거부하거나 도피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 그의 전향에 대한 적실한 설명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부터는 「맥령」을 살펴보기로 한다. 1947년 발간된 최명익의 소설집 『맥령』의 표제작인 「맥령」은 일종의 자전적 소설로서 두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 하나는 일제 하 자신의 문학에 대한

13) 김윤식, 「최명익론」, 『한국현대현실주의소설연구』, 문학과지성사, 1990 참조.

반성이며, 다른 하나는 북한 사회의 주요한 변화였던 토지 개혁을 계기로 농민으로 대표된 민중상을 새롭게 발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일제 하 자신의 문학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맥령」이 지식인의 내면적인 고뇌를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작품 전반부에 주인공인 상진의 생각이 제시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일제의 압박에 대한 피동적인 것일 뿐, 현실과 능동적으로 충돌하는 지식인의 내면 심리라고는 할 수 없다. 이제 이 점을 바탕으로 「맥령」을 살펴보기로 한다.

「맥령」에서 평양에 있는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원으로 지내던 상진은 1944년 봄 무렵 학교를 그만두고 집을 팔아서 3년을 버틸 요량으로 K군으로 소개해 나오게 된다. 사실 “소개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도회살림을 할 수 없게 된” 때문으로 제시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소개였다는 것은 K군 S면으로 소개해 나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제의 감시와 압박에 시달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럴 때 상진의 바람은 “어떻게 하면 이 난세를 욱되지 않게 넘길까” 하는 것뿐이다.

도로 찾아올 것도 없이 그냥 버려도 아깝지 않은 책들이지만 노상 크게 알고 압수했다 내주는 것이라 그자들 앞에서는 이편도 아주 소중한 책 묶어 가지고 나올밖에 없었다. 『우수의 철학』, 『우울증의 해부』, 『비극의 철학』, 『악의 화』 등등 이런 것들이 응당 금서일 리는 없지만 우선 그 건전치 못한 세기말적 표제에 놈들은 놀랐고 다음은 절박한 이 시국과는 하도 동떨어진 것이므로 오히려 어떤 迷彩나 같이 의심하고 압수하는 눈치였다. (중략) 지금도 아직 그렇게 (관헌의--인용자) 지목을 받는 중이라 방 안에 책 한 권도 없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하고 혹시 이번 경우와 같은 때 어떤 책을 어디다 감추었는가 의심받을 염려도 없지 않아 허울로나마 몇 권 책을 늘어놓았던 것이다.

조선말 책은 물론 붉은 글자 붉은 표지까지 꺼려가며 골라 내놓는 수십 권 중에 젊은 시절의 창백하고 말쑥한 우울의 자취로 남은 이 책들은 지금은 내출혈적으로 속 깊이 멍들고 찌든 그의 우수를 가리기 위한

미채로 가장 눈에 띄이게 진열했던 것이다.¹⁴⁾

위의 인용문은 최명익이 일제 하 자신의 문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암시하고 있다. ‘우수’, ‘우울증’, ‘비극’ 등 상진이 일제의 검색을 피할 요량으로 내놓은 책들의 이름은 “젊은 시절의 창백하고 말쑥한 우울의 자취”였던 그의 초기 소설의 특징을 상징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우울이 바로 그 다음에 제시되는 “지금은 내출혈적으로 속깊이 멍들고 찌든 우수”와 같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 ‘우수’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것은 절박한 시대 상황에 맞서지도 못한 채 단지 일제의 압박을 피할 수 있기만을 바라는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우수이다. 곧 이 부분에서 최명익은 자신이 초기작에서 보여준 우울이란, 비록 ‘창백하고 말쑥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일제 말기의 현실을 이겨내기에는 너무도 턱없는 것이었음을, 그리하여 일제 말기의 현실에 대한 무력함에서 비롯한 또 다른 우수를 가리기 위한 껍데기로써만 의미가 있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그리하여 일제 하 최명익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이었던 모더니즘적인 우울, 달리 말해 식민지적 근대성에 대한 도스토예프스키적인 고뇌는 이제 한갓 일제 말기의 압박과 검색으로부터 도피하는 껍데기(‘미채’) 같은 수단으로만 의미가 있을 뿐이라는 것¹⁵⁾에 위 인용문의 숨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곧 최명익은 이 부분에서 일제 하 자신의 문학이 지녔던 가치를 부정하면서 새로운 문학으로 나아갈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¹⁶⁾

14) 최명익, 『맥령』, 『비오는 길』, 문학과지성사, 2004, 246-247쪽.

15) 최명익의, 도스토예프스키에 대한 관점의 변화는 최명익, 『레프 톨스토이에 대한 단상』, 『글에 대한 생각』,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4에 나타나 있다. 이 글은 도스토예프스키에 대한 의도적 폄하를 내포하고 있어 완전히 진술한 고백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최명익 자신의 해방 후 심경 변화가 드러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16) 『맥령』에 드러난 최명익의 자기반성이 적실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이 논문에서 다루지 않는다. 그것은 평가자가 어떤 관점을 가졌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한편 이처럼 시대에 대응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따른 고뇌 속에서 최명익은 주위의 민중을 다시 보게 된다. 소설로 다시 돌아가면, 상진은 줍손이 영감과 그의 아들 인감이, 춘식이 등 주위의 농민들과 접촉하게 된다. 이들은 상진에게 전혀 새로운 세계로 다가온다.

“정말 이 아즈바니처럼 일에 탐센 건 없드라니…… 전 그렇드래두 남의 생각두 좀 하야디……”

하며 늙은이 코 앞에 손가락을 흔들어 보인다.

“호호호 일에 들어서두 사정이 있는가베.” (중략)

춘식이는 그때도 그 극성스러운 말투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좌우간 이 아즈바니가 저 암만 일을 잘하문 뭘 하갔소. 그렇게 알뜰 살뜰히 다루던 텃물받이는 사태에 쓸어버리구 말았다. 늙마에 당나무같이 믿던 외아들(안갑이--인용자)은 덩병(징병) 나가게 됐으니 살아오야 오나 부타 하게 됐다. (중략) 그러니 이 녀감의 팔자같이 더러운 것이 어디 있갔소.”

하고는 어이없이 껄껄 웃는 것이었다. 진정인즉 제가 소개한 줍손이 영감이 일손이 좋은 것을 자랑하기 위한 말로 시작하여 그의 딱한 신세를 동정해 하는 말이지만 남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기에는 그들의 손이 너무 거친 것처럼 그의 말도 이런 투로 거칠어서 얼른 들으면 독담 같기도 하였다.¹⁷⁾

상진에게 농민들의 세계를 표상하는 인물은 줍손이 영감이다. 상진의 집에 초가를 해주러 온 줍손이 영감은 위의 인용에서 보는 것처럼 농사일이라면 극성스러운 정도로 성심을 다하는 인물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그러한 삶에 긍지를 느끼는 인물이다. 위의 인용에서처럼 그의 투박하면서도 진실한 품성은 겉으로 듣기에는 독담 같은 통명스럽고도 거친 말에 오히려 울어야 할 일도 웃어버리면서 맞장구를 치는 데서 잘 드러난다.

없기 때문이기도 하며, 동시에 이 논문의 관심은 최명익 소설이 겪었던 격심한 변화를 작품의 내적 논리에 따라 고찰하는 데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17) 『맥령』, 263-264쪽.

이러한 거친 삶의 생생한 세계를 상진은 접하면서 그동안의 생각과는 달리 농민들도 자의식이 있고 고통이 있으며 무엇보다 소망을 가진 다름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런 점에서 줌손이 영감으로 표상된 농민들은 최명익이 일제 말기 때 쓴 마지막 작품인 「장삼이사」의 민중과 맥이 닿아 있다고 할 것이다. 그 작품에서 지식인으로서 ‘나’가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기초로 민중들의 반응을 예단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맞출 수 없었을 만큼, 민중들은 그 자체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맥령」의 상진도 품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줌손이 영감의 삶은 춘식이의 말대로 그의 노력과 달리 점점 더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된다. 애써 짓던 소작논이 홍수 사태에 휩쓸려 버렸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줌손이 영감은 소작하던 ‘텃물반이 논’을 되살리기 위해 지주를 찾아가기도 하지만 오히려 거절만 당하고 만다.

하지만 줌손이 영감을 비롯한 농민들에게 다가오는 시련은 홍수 같은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다. 그것은 일제에 의한 농민들에 대한 공출과 징용의 압박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상진과 비교해 본다면, 상진은 비록 일제의 검색에 대한 정신적 압박은 느끼고 있을지언정, 줌손이 영감 같은 농민처럼 생존이 걸린 압박을 받고 있지는 않았던 것이다. 물론 상진도 치솟는 물가로 말미암아 K군으로 소개해 나올 때 가져온 금전이 바닥날 지경에 처해 있지만, 그것은 농민들처럼 강제로 빼앗긴 것은 아니다. 이후 줌손이 영감이 “자기가 가진 유일하게 귀한 것”인 아들 인갑이를 일제에 빼앗기는 것—징용—까지 본다면, 줌손이 영감으로 표상된 농민들은, 자연재해와 소작관계, 그리고 일제에 의해 완전히 사면초가에 몰리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일은 우리만이 아니야요. 이 근경에 그렇게 해서 묵는 논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머 우리가 부티는 던장의 디주만이 나빠서 그런 거라군 안 해요, 땅에 대한 디주들의 니해 관계와 생각은 우리 농사꾼들과는 애초에 다르니까요.”

이런 말에 상진은 주춤할 지경으로 인갑이의 얼굴만 새삼스럽게 쳐다볼밖에 없었다. 이 얼마나 정확한 지적이냐. 지금까지의 이야기로 미루어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지만 그러나 인갑이는 논리로써보다 쓰라린 체험으로 얻은 자각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제 이야기로 흥분하여 더욱 소년답게 얼굴이 붉어진 그를 보는 상진은 아, 이 젊은 농민! 그의 현실을 정확히 보는 눈과 제 위치에 대한 명백한 자각--그것은 멀지 않은 장래에 새 역사의 창조를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에 상진은 전에 읽은 책 중에 '토지는 농민에게'라는 외침이 지금 인갑이의 말소리로 연상되는 것이었다.¹⁸⁾

그럴 때 절박한 농민들의 상황을 누가 가장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는가. 상진은 줍손이 영감의 아들 인갑이와의 대화를 통해 그것이 바로 농민들 자신임을 깨닫는다. “땅에 대한 이해관계와 생각은 지주와 농민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인갑이의 말은, 텃밭밭이 논을 둘러싼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어서 단순한 것이 아니다. 물론 이 부분은 1946년 토지개혁의 필연성과 정당성을 드러내기 위해 최명익이 삽입한 장면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농민들과 직접 접촉을 통해서, 그리고 농민들의 절실한 경험을 통해서 농민들의 생각을 그려냄으로써 작품 내에서 일종의 필연성을 획득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되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결국 「맥령」의 전반부에서 최명익은 상진으로 대표된 지식인과 줍손이 영감으로 대표된 농민들이 어떻게 일제 말기의 암담한 현실을 견뎌내고 있었는지 보여주려 한 셈이다. 그럴 때 상진으로 대표된 지식인은 농민의 현실에 새롭게 눈뜨면서 농민에게 동질감을 느끼는 방향으로 나아가간다. 이러한 서사 설정이 비록 1946년 토지개혁을 긍정적으로 그려내려는 이데올로기적 노력의 소산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진실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달리 본다면 최명익은 농민의 현실(소작관계)과 민족 문제(공출 및 징용)를 겹쳐놓음으로써 자신의 사상 변화에 필연성

18) 「맥령」, 276-277쪽.

을 부여하는 쪽으로 서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인데,¹⁹⁾ 이러한 점이야말로 비슷한 시기에 지식인의 내면 변화를 다룬 이태준의 「해방 전후」보다 뛰어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상진이 인갑이 같은 청년을 두고, “그맛 정도나마 자유가 있던 때에 자기는 왜 좀더 계몽적으로 이런 젊은이에게 친절한 글을 쓰지 못했는가” 하고 반성하는 장면은 기실 해방 후의 최명익이 앞으로 자신의 창작 방향을 예고하는 대목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선산님 / 「음」

「네 김일성 부대는 상계도 백두산에서 왜놈들허구 싸우잖디요?」

이런 인갑이의 말에 상진이는 별떡 몸을 일으켰다.

「김일성 부대!」

인갑이의 말을 받아 외는 상진은 서슴없이 그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아 이 젊은이는 날개가 있구나. 속으로 외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기막힌 진공관 속에서 김일성의 존재를 생각해내는 것만도 얼마나 씩씩한 비약이요 찬란한 낭만일까.

「물론 싸울거요. 지금이야말로 그분이 더욱 힘있게 싸울 때니까!」

청구 조선의 산머리 우리 선조의 웅대한 가지가지의 전설을 지니고 있는 백두산에서 동포의 의사를 대표하여 조국해방의 봉화를 높이 들고 싸우는 한 영웅의 모습을 눈앞에 그리며 상진은 대답하였다.²⁰⁾

그러나 이전 문학에 대한 상진의 반성은 상진의 내면으로부터 준비되지 않은 것이라는 점도 동시에 지적되어야 한다. 그것은 일제의 사상 검색과 농민의 비참한 현실이라는 외적인 계기에서 순전히 비롯된 것이었다. 이러한 외적인 계기는 상진의 내면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못한 채 존재하다가 그 해결책을 역시 외적인 것에서 발견한다. 김일성의 존재가 그것이다. 인갑이가 김일성 부대를 언급하는 순간, ‘별떡 몸을 일으키’면

19) 김재용, 「해방 직후 자전적 소설의 네 가지 양상」, 『민중문학운동의 역사와 이론 2』, 한길사, 1996 참조.

20) 「백령」, 279-280쪽.

서 “이 기막힌 진공관 속에서 김일성의 존재를 생각해내는 것만도 얼마나 썩썩한 비약이요 찬란한 낭만일까”라고 생각하는 상진의 반응은 이를 증명한다. 그에게 김일성은 내면으로부터 발견된 존재가 아닌, 외적인 계기로 갑자기 다가오는 존재인 것이다. 이에 더하여 “동포의 의사를 대표하여 조국해방의 봉화를 높이 들고 싸우는 한 영웅의 모습”이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김일성에 대한 상진의 생각이 기실 당시 북한에서 김일성을 찬양하던 말이 그대로 인용되어 나오는 것에서도 김일성이 일종의 새로운 권위적 담론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권위적 담론에 아무런 회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찬동하는 것, 그것은 이 소설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일제 말기 최명익의 심정이 아니다. 정확히 말해 그것은 평문협을 해체하고 좌익으로 달려갔던 1946년 3월 이후 최명익의 심정일 것이다.

「맥령」의 후반부는 해방 이전을 다룬 앞부분에서 중심적인 문제가 되었던 농민 또는 토지 문제를 중심으로 다룬다. 상진의 내면 변화가 아닌, 토지개혁 전후의 사회 변화, 특히 농민들의 변화를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진이 새로운 이념을 받아들이기 위해 필연적으로 가졌을 수밖에 없는 사상 선택의 고민은 제시되지 않는다. 지금부터는 이를 중심으로 작품 후반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해방 직후 상진은 건국준비위원회에 가담한 뒤, 소학교에서 가르칠 국어교재를 만든 다음, K군을 떠나 평양으로 가게 된다. 그가 평양에 도착한 다음 날 소련 군대가 입성하였고, 10월에 들어서자 김일성이 개선한다. 이 사이에 상진의 행적은 그다지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지 않다. 「맥령」이 자전적 성격을 지닌 작품임을 감안할 때,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념적으로 중립적이었던 평양문화예술협회와 관계된 사항들²¹⁾

21) 이 시기 최명익의 삶은 김윤식, 『해방공간의 문학사론』, 서울대출판부, 1989 ; 박남수(현수), 『적지 6년의 북한 문단』, 우대식 편저, 보고사, 1999 등을 참조.

을 최명익이 다시금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꺼렸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념적인 중립성은 이미 이 소설을 쓰던 1946년 중반기의 북한에서는 혹독한 비판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이후 소설은 1946년 1월의 시기로 넘어간다. 상진이 가담하고 있는 북조선예술총동맹의 사무실로 만주에서 무사히 귀국한 인갑이가 찾아온다. 인갑이와의 대화를 통해 상진은 해방이 되었어도 농민들, 특히 소작인들은 여전히 형편이 어려움을 알게 된다. 해방 이전과 다름없이 지주-소작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들은 “무한궤도의 춘궁”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사실, 상진과 인갑이의 이러한 만남은 일면 작위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미 K군을 떠나 평양에서 지내는 상진으로서는 농민 문제와 직접 연관되기 어렵기 때문에, 인갑이와의 만남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946년 3월 5일 북조선인민위원회에 의해 ‘토지개혁 법령’이 공포된다.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내세운 이 법령이 전격적으로 시행되고 불과 3주일에 모든 조치가 끝난다. 상진은 줍손이 영감, 인갑이, 춘식이 등의 농민들이 지주-소작 관계에서 벗어나 토지를 가진 자작농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을 감격 속에 본다.

「호호 참 보리고개는 정말 넘기 힘든 고개드랬소웁디. 그런 걸 우린 철 알아서만두 몇 십 고비나 넘겼는디!」

줍손이 영감은 암담한 과거에 후--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그는 또 호호호 웃기를 잊지 않았다.

「그래도 이젠 앞이 환하니 되었소웁디. 이젠 다 넘었으니까니 아마 이제 자라는 우리 자식네는 보릿고개는 옛말로나 듣게 되었소웁디.」

얼마나 변하였는가! 작년 봄까지는 그 얼마나 괴로웠고, 지금은 이 얼마나 즐거운 봄이 되었는가.²²⁾

22) 「맥령」, 314쪽.

토지개혁이 이루어진 지 일년만에 상진은 K군으로 가서 토지개혁이 얼마나 농민들의 생활을 바꾸어놓았는지 눈으로 목격한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로 인한 즐거움을 농민들과 함께 나눈다. 소설의 제목인 '보릿고개'는 토지개혁 덕분에 사라지게 되었으며, 농민들은 진정한 해방을 맞게 된 것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맥령」의 후반부는 엄밀히 말해 최명익이 홀로 쓴 것이 아니다. 후반부의 내용을 결정짓는 담론은 최명익의 것이 아니라 북조선공산당의 전신인 북조선인민위원회의 것이라 해야 옳다. 달리 본다면, 해방 이전 상진의 내면적 고뇌는 순전히 일본제국주의를 향한 것이었고, 그밖에 다른 고뇌는 「맥령」에서 제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 제국주의가 사라진다면, 상진은 북한 사회의 변화에 대해 일말의 회의도 없이 찬동할 태세를 갖춘 것이 된다. 곧 상진은 해방 이후에 어떤 고뇌도 없이 소련군의 진주와 김일성의 귀환으로 대표되는 북한 사회의 질서를 긍정 일변도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은 다음과 같은 외부의 목소리가 삽입되어 있는 데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

상진이가 평양으로 들어간 이튿날 소련 군대가 입성하였다. 유럽에서 파시스트의 침략을 막아내고 꺼꾸러트려 자기의 조국을 지켰을 뿐 아니라 침략자의 소굴이던 伯林에까지 진격하여 그 어간의 약소민족을 해방한 소련 군대는 다시 동양의 강도 일본 제국주의자의 군대를 무찌르고 지금은 평화와 자유의 옹호자로서 입성한 것이다. 그리하여 일본 근경은 무장해제가 되었고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었다.

☆

시월에는 김일성 장군이 개선하였다. 세계 민족 반열에서 우리 삼천만의 면목을 혼자서 유지하고 개선한 김장군을 민중대회에서 멀리 바라볼 때 지난 봄 일을 생각하고 아직 돌아오지 않은 인갸이의 소식이 새삼스럽게 마음 키었다. 그때 어둡던 마음의 들창으로 멀리 그리던 김장

군이 지금은 우리 눈앞에 친히 나타난 것이다.²³⁾

작가의 목소리로 서술되는 부분과 달리, ‘☆’로 구획지어 제시되는 위의 인용은 이러한 사정을 여실히 보여준다. 소설 가운데 생경하게 끼어든 위의 언급들은 작가의 시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 언급들을 가로지르는 것은 해방 이후 북한 사회의 주류를 이루게 된 소련군 및 김일성 파들의 목소리이다. 그 목소리에 소설의 주도권을 그대로 넘겨준 것,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로써 작가 자신의 개인적 고뇌는 소설에 제시될 여지가 없어지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²⁴⁾

물론, 사회주의 리얼리즘으로 진전하던 당시 북한의 문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최명익이 예전처럼 개인적인 고뇌를 제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했다면 그러한 작품이야말로 부르주아의 유산으로 비판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럴 때 이 작품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좌익으로의 전향을 그동안 보지 못했던 농민의 현실을 보았다는 외재적인 원인으로써 합리화하면서, 당시 북한 현실을 주재하던 권위적 담론을 어떤 회의도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었다.

“선산님 훌륭한 구경 좀 안 하실라우?”

한다.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본즉 동구 밖 들에서 몇십 명 농부들이 무슨 역사들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춘식이의 설명을 들으면 이번 토지 개혁으로 농민들이 토지를 분배할 때 그 텃밭받이와 줍손이영감이 문제였다고 한다. (중략)

“나두 다른 땅을 가지문 아무두 안 부티게 되니까니 그 아까운 텃밭받이 영 썩받이 되구 말갓소옵디? 것두 우리나라 땅이니까나 그렇다문 우리 농사꾼의 도리가 아니갓소옵디.” / 했다는 것이다.²⁵⁾

23) 「맥령」, 302-303쪽.

24) 김혜연, 「해방 직후 최명익 소설 연구--〈맥령〉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17집, 2002 참조.

25) 「맥령」, 308쪽.

그러나 이 지점에서 최명익은 권위적인 외부의 목소리 속에 자신의 관점을 은밀히 내놓는다. 그것은 얼핏 보기에 외부의 목소리와 같은 궤에 속하는 것이나 실상은 김일성으로 대표되는 지도자의 논리와 구별되는 민중 또는 인민의 관점을 자신의 것으로 치환하여 내놓는 것이다. 텃물받이 논을 둘러싼 인민의 반응이 바로 그것이다. 홍수로 인해 쑥대밭이 되어버린 그 논을 다시 복원하는 것, 그것은 지도자의 논리에서 비롯한 것이 아닌, 농민 자체의 관점에서 비롯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이 소설의 전반부에서 인갑이가 “땅에 대한 이해관계와 생각은 지주와 농민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에 이어지는 것으로 최명익이 가장 공들여 제시한 이 소설의 핵심적인 사건이다.

전격적으로 시행되었던 토지개혁에서 농민은 사실상 피동적인 위치에 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토지개혁 자체는 비록 지도자에 의해 실시된 것일지언정, 그것을 받아들이는 농민들의 능동성에 더욱 가중치를 두어 그려내는 것, 그것이 최명익이 마련한 사상적인 입지점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은밀히 지도자가 모든 것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였다. 역으로 말한다면, 지도자는 오직 인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이며, 인민이 지도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문제라는 관점을 드러낸 것인데, 이것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당성과 끝내 부딪히는 것이었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최명익에게 토지개혁은 지도자에 의해 역사적인 의미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농민의 손으로 황폐에서 옥토로 갱생하는 우리 국토의 한 폭”이라는 상진의 생각대로 어디까지나 ‘농민’에 의해서 결국 그 의미가 완성되는 것이었던 셈이다.

“우리 김장군님 안녕하시옵디?”

문득 뺨손이 영감이 묻는 말이다. 진심의 문안이였다. 단지 그가 상진이는 으레 김장군의 소식을 잘 알 사람으로 여기고 묻는 것이 거북하였다.

“자주 뺨지는 못하지만 물론 안녕하십니다.”

“참 그 어른…… 그 어른 덕분에 우리 농민들은 움 안에서 떡을 받았소웁디. 하도 어궁하구 꿈 같으니까나 침에는 끈이 안 들리더라니까.”

웁손이 영감은 또 호호호 웃었다.

“덧물받이꺼정 이렇게 고쳐지는 걸 보른 이전 정말이디요?”

춘식의 말이다.

“정말 이렇게 우리 농군의 손으로 쭉밭이 됐던 걸 다시 살리게 되구 보니까나 땅은 이제야 제 남자를 만났구나 합소웁디.”²⁶⁾

한편 최명익이 인민의 관점을 우선시했다는 이상의 논의와 웁손이 영감이 김일성의 안부를 묻는 것은 상반되어 보일 수도 있다. ‘그 어른 덕분에’이라는 웁손이 영감의 발언은 인민의 자발성과 상반되는 것으로도 파악될 수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위의 인용 뒷부분에서 그러한 감사는 춘식의 말에 의해 수정 보충된다. “우리 농군의 손으로”를 강조하는 춘식의 발언은 지도자의 지도는 계기일 뿐, 인민의 자발성이 더 본질적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맥령」을 살펴보았다. 이 소설에서 최명익은 1946년 전향한 뒤의 관점에서 일제 하 자신의 문학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그러한 선상에서 일제 말기의 참담한 현실을 견뎌내는 농민들의 관점을 중시하여 드러낸다. 인갹이와 웁손이 영감으로 대변되는 이러한 농민은 상진에게 놀라움을 주는 존재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농민의 관점은 이 소설 후반부를 관통하는 권위적 목소리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요소로 남는다. 이 소설의 후반부에서 최명익 개인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없다면, 그 대신 최명익은 농민의 관점을 가지고 들어와 지도자 중심의 논리에서 자신을 구별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 본다면, 이 시기의 최명익에게 공산주의 사상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다만 공산주의 및 김일성에 대한 선의의 기대가 그의 내면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최명익의 경향이 북

26) 「맥령」, 312쪽.

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초기 단계로 평가되는 이른바 ‘고상한 리얼리즘’에서 주로 드러내었던 ‘혁명적이고 지도적인 영웅’의 상과는 현저히 거리가 있었던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²⁷⁾

4. 주체적인 근대의 근거로서의 민중의 자발성

「맥령」 이후 최명익은 「마천령」에서 한 번 더 인텔리 출신의 인물과 농민 출신의 인물을 대비한다. 이 작품에서 동경 유학생 출신인 박춘돌은 함경도 마천령 부근에서 동지들과 지하활동을 하다가 검거된 후 혹독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허국봉 등 같이 투쟁하던 동지들을 보호하려 한다.

「인테리!」

그런 동무들의 말을 들을때마다 춘짚이는 속으로 이렇게 뇌까려 볼밖에 없었다. 어쩐지 가슴에 찢리는 말이었다. (중략)

생사를 같이하기로 맹서한 동지들과 지하생활을 하는 동안 그 비좁은 땅굴속에서 서로 체온을 바꾸며 같이 자고 먹고 일하는 중에 춘짚이는 부지불식간에 자기자신을 애끼는 경향이 있음을 스스로 발견하는 때가 많았다. 그 지하투쟁생활은 행동의 순간순간이 생사를 겨루는 모험이 아닐수 없었다. 그래서 동지들은 춘짚이를 되도록 그런 위험한 일이나 책임부서에는 내세우지 않았다. (중략) 비교적 안전한 땅굴속의 일을 하게

27) ‘고상한 리얼리즘’은 “1946년 11월의 건국 사상 총동원 운동을 제기한 김일성의 연설에서 시작되어” 1947년 3월 공식화되었다(김재용, 「초기 북한 문학의 형성 과정과 냉전 체제」, 『북한 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 지성사, 1994, 95-108쪽 참조). 최명익이 노동자와 농민 중심의 긍정적이고도 영웅적인 주인공들을 내세운 것도 이러한 북한의 문예 정책의 변화와 관련이 없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최명익은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민중상이 당과 ‘지도자’와 맺는 관계를 문제 삼는데, 그 부분이 최명익 중기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의 논의 참조.

된 것을 요행으로 여긴다면 순간 순간이 모두 모험인 활동을 하는 동지들에게 죄스럽고 스스로 부끄러워해야할 이기적인 생각이 아닐 수 없다.²⁸⁾

그러나 이 소설에서 중심적인 것은 일본 경찰의 혹독한 고문이나 지하투쟁의 고난이 아니다. 춘돌이 지하투쟁과 고문을 겪으면서 가지게 되는 지식인적인 자의식의 내용이 소설의 중심을 이룬다. 그러한 자의식이란 위의 인용에서 보듯이 인텔리 출신으로서 지니게 된 심성의 유약함이라는 한계에 대한 반성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반성에서 춘돌에게 이상적인 인물 형상으로 다가오는 것은 농민 출신의 허국봉이다. 국봉은 자발적으로 투쟁의 대열에 나선 농민의 담대하고 과감하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럴 때 춘호는 더 이상 자의식의 세계에 갇혀 있지 않고 세상의 변화를 위해 의미 있는 행위를 하기 위해 국봉을 본받고자 하는 것이다. 곧 이 작품에서 최명익은 인텔리적인 자의식과 농민 투사의 결연한 의지를 대비함으로써, 자발적인 민중상의 중요성을 드러내려 했던 것이다.²⁹⁾

그럴 때 비록 미완으로 끝났지만 최명익이 처음 시도한 장편인 『기계』나, 토지개혁 후 38선 부근 농민들의 통일지향적인 삶을 다룬 「남향집」에서 이제 인텔리 출신의 인물이 사라진다는 사실은 의미가 깊다. 이는 「맥령」에 대한 분석에서 보았듯이, 지식인의 자의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와 노동자 농민 등 민중들의 투쟁적 삶을 어떻게 그럴 것인가의 문제 가운데 전자는 사라지고 후자만 남으며, 동시에 민중들의 자발성을 본격적으로 그리게 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두 작품에서 민중을 지도하는 인물이 약화되거나 아예 사라져 있는 것도 주

28) 최명익, 「마천령」, 『맥령』, 문화전선사, 1947, 127-128쪽.

29) 이처럼 자의식을 내세운 작품이 당시 북한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었다. 「마천령」을 비판한 대표적인 예로는 김명수,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적 전제와의 투쟁을 위하여」, 『문학의 지향』,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4, 53쪽을 들 수 있다.

목할 만하다. 지도자의 존재는 최명익에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민중의 자발성이야말로 이 시기 이후 최명익이 창작의 잣대로 삼은 근본적인 사항이었던 것이다.³⁰⁾

『기계』가 미완으로 끝난 이후, 최명익은 다시금 노동자의 자발성을 그린 작품으로 「제일호」를 발표한다. 이 작품은 한편으로 소련과 북한 간의 친선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은 지도자-민중의 관계를 은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미리 말하자면, 이 작품은 지도자의 존재보다 민중의 자발성과 능동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남향집」보다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우는 급급한 마음에 머리를 긁었다. 그러나 다시 실패를 거듭하지 않기 위한 시험인 것을 알므로 그 결과를 기다릴밖에 없었다. 처음에 현우는 그만 작은 흠집이 그리 대단한 결함이 될까? 하느니만치 주물공장 노동자 동무들이 그렇게 애써 만든 것을 그 단 한 개의 모래구멍 때문에 못쓴다고 하는 기술과장의 말에 가슴이 무뎠해지기도 했다. 그리고 또 만일 그것이 실패였다면 곧 다른 것을 만들어 하루바삐 ‘우리의 트랙또루’가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는 농민들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 아니냐고 하는 현우였다.

---그러나 나는 ‘우리 트랙또루’로 ‘우리땅’을 갈게 되기를 기다리는 농민의 한 사람일 뿐이다. 여기 우리 기술자 동무들이 있다. 이 동무들의 의견을 좇자--.³¹⁾

「제일호」의 배경은 일본 미쓰이의 비행기공장이었지만 해방 이후 국영 평양 자동차공장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건설된 공장이다. 위의 인용에서 보듯이, 이 공장에 농민을 대표하여 파견 나온 현우라는 인물의 시선에 따라 북한의 실정에 걸맞게 트랙터 엔진을 개발하려는 노동자들의

30) 이 부분 또한 ‘고상한 리얼리즘’과 은밀하게 대척되는 지점이라 할 것이다.

31) 최명익, 「제일호」, 428-429쪽.

분투어린 노력을 포착하는 것이 이 소설의 중심을 이룬다.

그러나 새로운 엔진을 개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크랭크샤프트를 깎아내는 일, 실린더의 주형을 모래와 흙을 섞어 정교하고 말끔하게 만들어내는 일, 그리고 주조 과정에서 주형이 허물어지지 않게 쇠줄 대신 구리줄을 넣는 일은 노동자들의 열성과 창의성으로 해결된다. 그러나 주조된 실린더에 작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러한 열성과 창의성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었다. 아래 인용에서 보듯이, 그것은 ‘비밀’스러운 과학 이론과 기술의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였던 것이다.

어떻게 하면 부어낸 주물의 속살을 단련한 쇠와 같이 속이 배짱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과학과 기술의 비밀! / 우리는 그것을 배우지도 못했고 또 스스로 찾아낼 경험을 쌓을만한 기회도 가지지 못했던 것이다.

과거 왜놈들은 저희 나라의 가와자끼(川崎) 비행공장의 주물이니 사가(佐賀) 조선소의 주물이니 하여 자칭 우수하노라는 저희 주물기술을 자랑할 뿐 그것은 비밀이었다. 우리 조선 사람에게만 아니라 저희끼리도 비밀이었다. 모든 것을 독점해 온 자본가들은 과학 이론과 기술까지도 독점해 왔다.³²⁾

이러한 상황에서 최명익은 “해방 후 북조선에서는 임금 노예의 처지로부터 해방된 노동자와 기술자의 노력과 창발력으로써 작은 보트 치륜(齒輪) 같은 것으로부터 인쇄기 마침내는 고성능의 운전기까지도 만들기에 성공했다.”고 적고 있다. 곧 근대의 산물들이 민중의 자발성으로 성취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렇게 성취된 근대야말로 진정한 근대이자 우리 민족이 애써 성취하고자 했던 근대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중의 자발성만으로 일제강점기의 식민지적 근대성을 넘어

32) 『제일호』, 430쪽.

좀 더 진전된 근대를 이루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것을 최명익은 트랙터 엔진의 실린더 제조에 얽힌 난관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난관을 뚫고 지나갈 것인가.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소련군이다. 현우와 문선이는 공장 가까운 곳에 주둔하고 있는 소련군 병사 소폴로브와의 우연한 인연을 바탕으로 소련군 본부의 관심을 받게 되고, 본부의 주선으로 소련군 중위로 북한에 나와 있는 기술자인 까디쎬브와 안또노를 소개받게 된다. 그는 자동차공장을 둘러본 후 프랑크샤프트를 독자적으로 깎아낸 것과 주형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것에 감탄한다.

『당신네는 과학적 기술에 상당히 가까이까지 육박해 왔소. 정확한 설계로 된 모형은 물론 부어낸 시린다의 매끄러운 살결, 이것은 사형(砂型)을 만드는 치밀한 기술을 말하는 것이요, (중략) 모두가 당신들의 진지한 생각과 열성적 실천의 경험으로 얻은 과학적인 값 높은 창발성이요, 단 한 가지 동무들이 모르시는 건 숫자뿐이요.』 (중략)

『동무들 들었소? 우리가 몰라서 실패하구 안타까와 하던 비밀을 이 쏘련군대 중위 동무가 우리와 같이 일하며 가르쳐 주신다는 걸……』

옆에 둘러서서 듣고 있던 노동자들 가운데서는 『와-』 환성이 일어났다. (중략)

『나는 지금까지 큰 과오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불쑥 이런 말을 시작한 현우의 손은 떨렸다.

『왜 지금까지 선진 과학을 가진 쏘련 동무의 방조를 구할 생각을 못했는지! 그랬으면 우리 일은 벌써 성공했을 거요.』 (중략)

통역관에게 물어서 현우의 말뜻을 안 까디쎬브는 머리를 흔들었다.

『만일 처음부터 우리가 이 일에 관계했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당신네의 경험과 그리고 그 경험으로 생긴 자신심은 없었는지 모를게요. 그것은 더욱이 새 나라를 세우는 당신네 조선 노동자에게는 더 값 높은 것이 될 것입니다.』³³⁾

그럴 때 위의 인용은 이 소설의 핵심적인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

33) 『제일호』, 437-438쪽.

이다. 여기서 주안점은 소련군의 지도는 일종의 화통점정의 역할을 하는 것이어서 중요하기는 할지라도 본질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본질은 어디까지나 민중의 자발성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중의 자발성은 폐쇄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한 자발성은 긍정적인 의미의 지도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태도가 된다. 적절한 지도는 민중들이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도가 본질이 될 경우, 민중들은 자발성을 잃고 지도하는 자에게 전적으로 매달리게 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위의 인용을 보면, 현우는 소련군의 조력을 구하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자신을 타하면서 그것을 ‘과오’라고 말한다. 이는 얼핏 보기에 맞을 수도 있다. 진작 소련군의 도움을 청했으면 노동자들의 수고가 덜어지고 트랙터도 더 빨리 생산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우의 발언은 까디쎬브에 의해 번복된다. 처음부터 지도하는 것은 민중의 경험을 제한하고 나아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없애는 일이 된다는 것이다. 기실 이 까디쎬브의 발언은, 작가 최명익의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민중의 자발성에 의한 경험과 노력이 있을 때에야 지도도 올바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한편 이에 더하여 까디예프는 만약 처음부터 지도를 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응당 동무들에게 트락또루를 만들기 전에 먼저 기계 설비부터 하시라구” 권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 발언의 의미 역시 명확하다. 민중의 자발성보다 지도가 선행할 경우, 자칫 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소련의 기술이 일방적으로 수입되는 결과에 그쳤으리라는 점이다. 곧 이 부분에서 최명익은 보편적인 근대라 할지라도 북한의 특수성에 걸맞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³⁴⁾

이러한 논의를 볼 때, 「제일호」는 지도자는 민중보다 본질적일 수 없다는 것, 민중이 열렬히 원할 때라야 지도도 민중의 상황에 걸맞는 특수

34) 김재용, 「해방 직후 최명익 소설과 『제1호』의 문제성」, 『민족문화사연구』, 제17호, 402-403쪽.

성과 현실성을 띠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은 작품 경향은 해방 이후 당 중심과 김일성 중심을 향해 달려가던 북한의 상황에서 과연 무엇을 위한 이념이고 지도자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 최명익이 그 나름으로 의문을 던지면서 자신의 관점을 내밀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할만하다. 어디까지나 민중의 자발성에 의거한 보다 진정한 근대성으로의 진입, 그것이 최명익이 해방 직후의 시기에 최명익이 원했던 우리 민족의 미래였던 것이며, 동시에 일제강점기 작품에서 문제 삼았던 폭압적인 식민지적 근대성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향으로 최명익이 생각했던 것이기도 하였다.

5. 결론

이상에 걸쳐 「맥령」과 「제1호」를 중심으로 최명익의 해방 이후 소설을 해방 이전 소설들과의 연속성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일제강점기든 해방 이후든 최명익의 삶과 문학은 근대란 무엇이며, 그러한 근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의문과 연결되어 있다.

해방 이후 최명익은 당시 대부분의 우리 민족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념 선택의 상황에 처한다. 이때 최명익은 식민지적 근대에 대한 기왕의 인식과 함께 모더니즘적인 문학의 외양에 가려져 있던 사회주의의 타당성에 대한 신뢰--막연했음지도 모르지만--를 바탕으로 공산주의가 득세하게 된 북한의 현실을 수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일제의 잔재 청산과 봉건적 제도의 청산이 철저히 이루어진 것도 그 한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삶이 순탄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부르주아의 잔재, 인텔리겐차의 한계, 자연주의적 경향 등의 비판이 항상 그를 따라다녔다. 그 속에서 최명익이 자신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민중의 자발성 내지 능

동성이었다. 이때 최명익이 생각한 공산주의는 그러한 자발성에서 출발하여 지도자를 거쳐 다시금 자발성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곧 그에게 당이나 지도자 또는 수령은 공산주의의 본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히 민중에 의하고 또 민중을 위해 존재할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자체로 민중을 압도하는 의미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파악 자체가 이미 자유를 중시하는 부르주아적인 것일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최명익의 몰락은 예정되어 있는 것이기도 했다.

여기서 최명익이 해방 직후에 쓴 소설들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해방 이후의 당대적 문제를 다룬 이 소설들에서, 이제 근대를 성취하는 것은 민중들이다. 이들은 해방이나 토지개혁이라는, 비록 열렬히 소망하는 했으나 그들 스스로가 이루지는 못했고 외부에서 부여된 사태를 자발성과 능동성으로 훌륭히 소화해낸다. 소작 관계에서 해방되자 스스로 개간에 나서는 농민들이 그러하고, 체제가 달라진 민족 간의 화해를 가장 먼저 이끌어내는 농민들이 그러하며, 지도를 필요로는 하지만 그 지도 자체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훌륭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노동자들이 그러하다. 이들은 지도자에게 감사하고 그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그렇다고 지도자에게 의존하지는 않는 주체적인 개인들이다. 이 글에서 상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1950년대 북한 소설의 한 성과로 평가받는 『서산대사』 역시 마찬가지다. 겉으로 보기에 서산대사라는 영웅적 인물이 신비화된 채 등장하여 민중을 이끌어 왜적을 격퇴하지만, 실질적으로 그의 형상은 철저하게 수단적이지 그 자체가 목적인 측면은 어디에도 없다. 그의 활동은 민중과 완전히 결합되어 있으며, 그러한 민중은 ‘의병’이라는 말이 함축하듯이 무식하든 무식하지 않든 간에 철저히 자발성을 지닌 존재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들이야말로 당이나 지도자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삶의 구체적인 부면에서 투쟁하면서 스스로 근대를 만들어나가는 존재들이라는 점이다. 곧 이 시기 최명익은 일제의 압제

밑에서는 결코 꿈꾸지 못했던 주체적인 근대, 능동적인 근대를 만들어 그것으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이상을 지녔던 것이다. 민중에 의한 근대의 자발적인 성취, 이를 그려내었다는 점만으로도 최명익은 비단 모더니즘뿐만 아니라 리얼리즘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남겼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자발적인 민중상이 부르주아적인 자유의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민중을 이상화한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어쩌면 당과 지도자의 역할을 본질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만 가능하다. 곧 당과 지도자의 역할을 본질적으로 받아들였는가의 여부에 따라 최명익의 운명도 결정되었던 것인데, 결코 북한이라는 권위적인 국가 체제가 규정하는 만큼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 그의 비극적인 죽음을 낳았던 근본적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민정, 「1930년대 후반기 모더니즘소설연구--최명익과 허준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논문, 1994.
- 김윤식, 『해방공간의 문학사론』, 서울대출판부, 1989.
- _____, 「최명익론」, 『한국 현대 현실주의 소설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90, 169-220쪽.
- 김재용, 「해방 직후 자전적 소설의 네 가지 양상」, 文藝中央18,('95.5), 중앙일보사, 136-151쪽.
- _____, 「해방직후 최명익 소설과 『제일호』의 문제성」, 『민족문학사연구』, 제17호, 1996, 396-442쪽.
- _____, 『북한 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 지성사, 1994.
- 김혜연, 「해방 직후 최명익 소설 연구 -〈맥령〉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17집, 2002, 229-250쪽.
- 박남수(현수), 『적치 6년의 북한 문단』, 우대식 편저, 보고서, 1999.
- 신형기, 「최명익과 쇄신의 꿈」, 『현대문학의 연구』 24집, 2004, 339-383쪽.
- 정현숙, 「대립과 갈등의 미학 : 최명익 소설을 중심으로」, 한양어문연구 13, 한양어문연구회, 1995, 619-636쪽.
- 진정석, 「최명익 소설에 나타난 근대성의 경험 양상」, 『민족문학사 연구』 제8호, 1995, 179-199쪽.
- 채호석, 「리얼리즘에의 도정」, 『한국문학의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김윤식·정호웅 편, 민음사, 1989, 178-234쪽.
- 최명익, 『글에 대한 생각』,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4.
- 최혜실, 『1930년대 모더니즘 소설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1.
- 발터 벤야민, 『발터 벤야민의 문학이론』, 반성완 역, 민음사, 1983.
- 마샬 버만, 『현대성의 경험』, 윤호병·이만식 역, 현대미학사, 1994.

<Abstract>

A probl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ople's Spontaneity and Leadership
- A Study on Choi, Myung-Ik's Medium Term Works

Jang, Su-Ik*

This thesis is to study on the latter term works of Choi, Myung-Ik who was an influential writer in the 1930's Korean modernism fictions. At that time, Choi had produced unique works focused on the intellectual's agony to modernity of colonial Chosen(Korea) and the novelistic figuration to the motive of getting on a train or car. The motive was composed of 'speed', 'driver' and 'fellow passangers' that Choi regarded as representations of moderinty or colonial modernity. Especially 'fellow passangers' meant the colonial people who could think and act spontaneously even if they were taken away to modern.

This spontaneity of the people was the main theme of Chio's novel after Korean Liberation(1945). In 『Mack-ryung(맥령)』, Choi showed an intellectual to discover the spontaneity of peasants, who instinctively understand the class interest to land. And in 『Che-il-ho(제일호)』, he showed the heroic laborers who spontaneously effort to produce the first tractor engine. Even if they received material and moral support from the Chosen Communist Party and the army of USSR, the first engine they produced was the result of their creative earnestness. The engine was Chosen type that fitted Chosen

* Hannam University

agricultural land, not USSR type. It was this spontaneity that Choi tried to show more essential to socialistic revolution over the leader of communist party in his medium term works.

Key Words : colonial modernity, fellow passengers, spontaneity of people, leader of communist party, heroic laborers

■ 논문접수 : 2012년 3월 15일

■ 심사완료 : 2012년 3월 31일

■ 게재확정 : 2012년 4월 10일